



부산해양경찰서

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1.(목)	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
담당 부서	해양오염방제과 예방기동계	책임자	과 장 김 윤 호
		담당자	계 장 최 주 현 (051-664-2197)

## 부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

-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점검 -

부산해양경찰서(서장 이병철)는 범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해수부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, ▲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충족 ▲연료유 견본 보관 ▲연료유 교환내용 기관일지 기재 ▲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▲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.

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은 국제적으로 20년,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 선박에 대해 연료유(중유)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0.5%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,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.1%(경유 0.05%-국내항해) 이하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.

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또는 「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“정부 차원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”며, “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,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.”고 전했다.